

금감원, '삼바 재감리 요구' 수용... '원안고수' 왜 바꿨나

조치안 보완 요청 거부하던 금감원, 재감리는 수용 "이례적이지만 증선위 요구 면밀히 검토할 것" 예정됐던 브리핑 갑자기 취소... "오해 유발할까 우려"

금융감독원이 증선위 재감리 요구를 수용했다. 조치안 보완요구에도 그동안 '원안고수' 입장을 보였던 금감원이 입장을 바꾼 배경이 주목된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내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재안에 대해 "증선위 결정을 존중한다. 증선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재감리 요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1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엔에 부여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몰염전 등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금감원 지적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이 부분에 대해

금감원이 감리를 다시 실시하면 그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감리 요청에 금감원은 "부자주식 인의평가와 관련한 증선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하루만에 감리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조치안에 대해 원안 고수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증선위는 금감원이 2015년도의 회계연경 문제만 지적한 부분이 불충분하다면서 2012~2014년 회계처리 변경도 함께 검토해 조치안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이 증선위 보완 지시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논란이 됐다. 윤석현 금감원장까지 나서 '원안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 혁신과제" 브리핑에서 "증선위 요구대로 검토하면 이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러 이유로 확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금감원이 증선위 보완요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증선위가 아예 감리를 다시 요청하는 편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선위가 이례적으로 재감리를 요청한데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을 최종 내리겠다고 조강수를 두자 금감원에서는 이를 즉각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일선외 과정에서 분식회계 여부에서 '금융위-금감원 불협화음'으로 영랑하게 이슈가 흘러가자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로 이를 우려한 금감원은 증선위 제재안 발표 다음날인 13일 오전 예정됐던 브리핑을 약 한시간 전 갑자기 취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리핑이 금융위와의 마찰 등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시킬까 우려해 브리핑 대신 입장만 간단히 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선위 재감리 요구가 이례적이라 아직 절차나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면서 "증선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며 감리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시스

카카오페이, 찾아가는 캠페인으로 오프라인 결제 확대 나서

카카오페이가 오프라인 결제 확대에 나선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선보인 QR코드 기반의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카카오QR결제를 더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8월까지 약 두 달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지난 13일 밝혔다. 실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캠페인 영상이 이날부터 TV광고로 온에어된다. 광고 영상은 푸드트러, 1인 가게 등 전통·재래시장과 플라마켓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카드 수수료나 현금 거래 시 발생하는 불편함을 카카오QR결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는 전통·재래시장 플라마켓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접점이 활발한 지역을 찾아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남대문시장과 노량진 수산시장, 수원 영동시장, 용산 열정도 등 대표적인

전통·재래시장, 트렌디한 플라마켓으로 부상한 전국 각지의 리버마켓을 찾아가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에게 '카카오페이 QR결제'를 안내하고, QR결제 키트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카카오페이 QR결제가 가능한 점포의 사진을 찍고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거나 카카오페이 QR결제로 1원 이상 결제하면 현장에서 카카오프레즈 캐릭터 부채, 라이언 헬륨풍선, 솜사탕 중 하나를 무료로 증정한다. 전통·재래시장에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쿠폰 증정 이벤트도 추가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카카오페이' 캠페인이 열리는 날 노량진 수산시장, 수원 영동시장, 용산 열정도 등 1000원을 결제하면 5000원 어치 구매 가능한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해 작은 부담으로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뉴스시스

익산 국도변 복잡한 교차로 진·출입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이 익산 외곽 국도변의 복잡한 교차로 진·출입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기로 했다. 익산국도청은 오는 10월 전국체전이 열리는 익산지역 주변 국도 12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노면 색깔 유도선'은 진행 방향의 경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 유도를 위해 노면에 분홍과 녹색 등 밝은 색상의 유도선을 설치, 운전자가 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색깔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이 있다.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 운영한 결과 분기점과 나들목 부근 교통사고가 약 2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주요 국도변 교차로에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경우 전국체전 기간 동안 익산을 방문하는 운전자들이 쉽고 안전하게 익산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NH농협생명, 농촌순회 무료진료 실시

독거노인·다문화가족 등 총 8개 과목, 진료서비스 제공

전북농협 NH농협생명(대표이사 서기봉)은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서창석)공공의료사업단과 함께 순창군 동계농협에서 농촌순회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공공의료사업단 농촌순회 무료진료는 (서울대학교 의료진 봉사단) 40여과 함께,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등 선진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 약 400여명에게 (내과, 안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총 8개 과목, 진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진료 대상자 한 명당 평균 3개 과목을 진료, 진료·검사·결과



안내, 처방·건강안내서비스'까지 인스톨로 제공했다. 또한, 이번 무료진료는 진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장수사진 무료촬영 서비스' 제공 전문사진작가와 스타일리스트가 동행해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동계농협(조합장 안준섭)은 "농민들의 힘겨운 농촌일 작업으로 인해 몸이 많이 상하고 있지만 여러건강 종합병원까지 가지 못해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공공의료사업단 무료진료)를 통한 우리 농민들의 건강을 되찾아 활기찬 동계면이 되길 바란다"며 말했다.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지광수)은 "NH농협생명의 근간은 농촌이며, 농촌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야 농협도 산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농심(農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농협생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기재부 "설비투자·소비, 조정 美中 무역갈등에 불확실성↑"

5월 소매판매·설비투자, 전월 대비 1.0%·3.2%↓ 5월 전산업생산, 0.3%↑... 2개월 연속 증가세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근 우리경제와 관련, "설비투자·소비 등이 조정을 받은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전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최근 지표를 보면 5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는 2.8% 증가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각각 3.3%, 1.4%씩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소비가 줄었다. 같은 달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2% 감소했다. 기계류 투자는 0.2% 증가했지만 운송장비 투자가 11.0% 줄면서 3월 이후 3개월 연속 이니저 추세를 이어갔다.

기재부는 제조업 평균가동률 상승 설비투자 조정안력 상승, 제조업 업황 전망 개선 등은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이지만 기계류 수입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도 건설기성(발령)이 전월에 비해 2.2% 감소했다. 토목은 2.6% 증가했지만 건축 공사실적은 3.7% 줄어든 탓이다. 5월 전산업생산은 0.3%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광공업 생산이 자동차, 통신·방송 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에 따라 1.1% 늘어났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1% 하락했다. 6월 중 수출은 석유제품, 컴퓨터, 반도체 등의 호조가 이어지며 사상 최초로 4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상회했다.

품목별로 석유제품·컴퓨터·반도체 등이 큰폭으로 증가했지만 가전·선박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중국·일본·미국·유럽연합(EU) 등은 호조세를 보였고 아세안·중남미·중동 등을 감소세를 기록했다. 다만 고용상황은 위축 국면이 지속됐다. 6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한 뒤 5월에는 7만2000명까지 추락했다. 6월 반등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청년실업률은 9.0%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는 "세계경제 개선, 수출호조, 추가경정예산 집행 본격화 등은 긍정적 요인"이라면서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글로벌 통화마찰,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 국제유가 상승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시스

익산시 - 한국전기안전공사 스마트 전기안전 지원 협약

2018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도시인 익산시가 지난 13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와 2018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스마트 전기안전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익산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가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약 90일 앞으로 다

가운 시점에서 전기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체전의 기반을 다지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위해 마련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에 따라 전국체전 경기장 등의 전기 설비와 관련 스마트 전기안전 점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기장 정전 및 전기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해 최우선 복구에 협조할 계획이다. 익산시장은 "우리시에서 치러지는 전국대회 행사인 만큼 경기장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철저한 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방 업무 또한 효과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